

성인여성의 아동기 어머니에 대한 애착이 자녀에 대한 표출정서에 미치는 영향: 지각된 표출정서를 매개로*

이 선 지¹⁾

김 정 모²⁾

영남대학교 심리학과

본 연구는 만 4~10세의 자녀를 둔 33명의 성인여성을 대상으로, 성인여성의 아동기 시절 어머니에 대한 애착과 자녀에 대한 표출정서의 관계를 연구하였다. 선행 연구에서 표출정서가 애착과 깊은 관련이 있으며, 애착과 더불어 표출정서 또한 세대 간 전이가 일어난다는 것이 밝혀졌으나, 애착의 수준에 따른 표출정서의 전이 과정을 명확하게 설명하는 연구는 미흡한 실정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표출정서의 전이를 알아보기 위해 자기보고용 설문지 및 5분 말하기 면담을 활용하여 성인여성의 어머니에 대한 애착과 지각된 표출정서, 자녀에 대한 표출정서를 함께 측정하였으며, 애착과 표출정서의 상관관계, 그 사이에서 지각된 표출정서의 매개효과를 살펴보았다. 그 결과, 애착과 지각된 표출정서, 표출정서는 높은 상관을 보였으며, 지각된 표출정서는 애착과 표출정서를 유의하게 매개하는 것으로 나타난 바, 선행 연구에서 제시되었던 표출정서의 세대 간 전이를 분명히 밝히고, 애착과 표출정서의 관련성을 재확인하였다. 이는 개인의 성장에 있어 가정 내 상호작용의 패턴의 중요성을 시사하며, 더불어 3대에 걸친 표출정서의 전이를 연구하고 5분 말하기를 통해 객관적인 표출정서를 살폈다는 데 의의가 있다.

주요어 : 애착, 표출정서, 5분 말하기, 애착의 세대 간 전이

* 본 논문은 영남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논문의 일부임.

1) 영남대학교 심리학과, 석사, 서대구대동병원 임상심리수련생

2) 교신저자 : 영남대학교 심리학과, 교수 (E-mail : jungmo@ynu.ac.kr)

I. 서론

대부분의 개인은 어릴 때부터 가족 구성원과 상호작용하며, 이러한 과정을 통해서 심리적 안정과 정서적 지지를 얻고, 개인 특유의 상호작용 및 문제 해결 방식을 배우게 된다. 따라서 사람들에게 가족이라는 환경은 개인의 신체적·심리적 발달과 더불어 인생 전반에 걸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문제를 보이는 가족의 상호작용 방식은 개인에게 장기적인 스트레스로 작용할 수 있고, 이에 취약한 사람들은 심리적인 문제를 경험하며, 나아가 일부 개인은 정신장애가 발병 또는 재발할 가능성이 높다.

정신장애를 가진 환자의 치료와 예후에서 가족의 영향이 크다는 인식과 더불어 가족 환경의 중요성에 대한 연구가 등장하면서(Brown, Carstairs, & Topping, 1958; 허정선, 현명호, 2005에서 재인용) 가족의 정서적 분위기를 살피는 연구 또한 늘고 있다. 후속 연구들은 부정적인 정서 수준을 나타내는 것 중 하나인 표출정서(Expressed Emotion; EE)가 정신장애의 재발 및 예후와 상관이 높다는 결과를 보였다(Andrzej, Anna, Igor, & Artur, 2012; Brown, Birely, & Wing, 1972; Butzaff & Hooley, 1998). 표출정서에 관한 연구 논문을 분석한 국내 연구에 의하면(김상남, 이경희, 2002), 표출정서란 ‘가족이 정신과 환자의 질병 및 가정생활에 대해 보이는 비난적 언어, 적대적 또는 지나치게 관여하려는 태도’를 의미하며, 환자의 증상 재발을 예측할 수 있는 요인 중 하나로 높은 표출정서를 꼽았다. 특히 표출정서의 하위요인 중 비난(Criticism)은 조현병의 양성증상

과 상관을 보였고, 정서적 과잉관여(emotional over-involvement)는 정신과적 증상의 발병과 재발을 예측하는 수준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표출정서가 특정 가족구성원에게 더 부정적으로 작용하는 것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면서 가족이 드러내는 실제의 표출정서보다 표출정서가 향하는 대상이 이를 심각하고 예민하게 받아들이는 ‘지각된(perceived) 표출정서’에 의해 조현병의 양상이 좌우되며(Cole & Kazarian, 1988), 가족의 객관적인 표출정서보다 환자가 ‘지각하는’ 가족의 태도가 재발과 더 높은 관련을 보인다는 연구 결과들이 발표되었다(Lebell et al., 1993). 이러한 연구들은 ‘얼마나 많은 비난이 환자에게 전달되는가(Hooley & Teasdale, 1989)’와 같이 환자가 주관적으로 어떻게 느끼고 지각하는가가 객관적인 표출정서보다 더 중요하다는 것을 설명한다(허정선, 현명호, 2005).

이처럼 표출정서는 정신 질환이 있는 성인 자녀에 대한 부모의 태도와 가족 분위기를 연구하는 것에서 시작되었지만(Brown et al., 1972), 표출정서에 대한 관심이 증가함에 따라 일부 연구 결과에서는 표출정서가 조현병뿐만 아니라 신경성 우울증의 재발(Nathalie, Guy & James, 2012; Vaughn & Leff, 1976), 아동기 우울증(Katie, Dorothy, Lindsey, Valerie, & Brandon, 2012; Martha et al., 2009)과 깊은 관련이 있으며, BPD(Hooley & Hoffman, 1999), PTSD(Tarrier, Sommerfield, & Pligrim, 1999), 신경성 식욕 부진증(Daniel, Renee, James, & Susan, 2011)과도 상관을 보였다. 따라서, 표출정서는 다양한 정신장애의 발병과 증상의 경과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생각된다. 또한, 당뇨 등

성인병과 상관을 보이는 연구가 등장하면서 표출정서 개념의 일반화 가능성을 시사하고 있으며(Koenigsberg, Klausner, Pelino, Rosnick, & Campbell, 1993), 점차 청소년과 유아에 대한 부모의 정서적 태도를 연구하는 것으로도 확장되고 있다(Stubbe, Zahner, Goldstein, & Leckman, 1993; Susan, Ronald, & Susan, 2010).

한편, 표출정서에 대한 관심이 대두되면서 표출정서를 측정하는 반구조화된 면담법인 Camberwell의 가족 면담(Camberwell Family Interview; CFI)이 평가와 해석에 많은 시간이 소요되어 실제 활용에 제약이 있다는 점이 주목을 받았다(김진훈 외, 2007). 이에 따라 보다 경제적인 방법으로써 5분 말하기(Five-minute speech sample; FMSS)가 고안되었는데, 독일에서는 기존에 활용되던 CFI와 동일하게 표출정서를 측정하는 것으로 검증되었고, 현재는 아동을 대상으로 한 표출정서의 연구에 주로 활용되고 있다(Dorothy, 2005; Magaña et al., 1986).

지금까지 살펴본 연구들은 가족이 개인에게 표출하는 부정적인 정서가 개인을 자극하는 환경적인 스트레스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으며, 그에 따라 표출정서가 정신장애 및 기타 신체적 질환의 발병과 재발에서 매우 중요함을 일관되게 보여주고 있다(Butzaff & Hooley, 1998; Chambless, Bryan, Aiken, Stoketee, & Hooley, 2001). 이에 연구자들은 어떤 가족이 표출정서가 높은 가족이 되는지에 대해 초점을 맞추기 시작했다. 이러한 관심을 반영하는 선행 연구는 높은 표출정서를 보이는 가족과 낮은 표출정서를 보이는 가족이 애착과 성격특성에서 유의미한 차이가 있다는 결과를 제시하며(Diamond & Doane, 1994), 최근 한국에서 이루어진

연구에서는 불안정 애착을 형성하고 자아탄력성이 낮은 부모들이 표출정서가 높은 가족으로 지각되는 것을 알 수 있다(허정선, 현명호, 2005).

개인이 그 부모와 형성한 애착에 대한 연구는 표출정서의 원인이 가족에게 있다는 관점을 제공한다. 연구들은 Bowlby가 설명한 애착의 내적작동모델(internal working model)과 세대 간 전이(intergenerational transmission)의 개념을 설명하면서, 애착과 표출정서가 분명한 관련성이 있으며 개인이 그 부모와 형성한 애착은 내적작동모델을 통해 자녀에 대한 표출정서에 영향을 준다고 설명했다(Diamond & Doane, 1994; Paley, Shapiro, & Worrall-Davies, 2000). 즉, 부모와의 관계에서 형성된 내적작동모델은 영아기에서 성인기에 이르기까지 성장 과정 전반에서 자아개념과 대인관계 표상에 영향을 주어 친밀한 관계 형성에 기초가 되며, 정서적·사회적 적응에 영향을 줄 수 있다고 제시했다(정옥분, 정순화, 황현주, 2009; 하유미, 박성연, 2012; Bowlby, 1973). Hamilton(2000)의 연구에서도 애착이 오랜 시간 지속되는 안정적인 속성임을 지지하고 있다.

부모-자녀 관계에서도 여성의 어린 시절 애착이 아동과의 상호작용을 통해 형성되는 애착관계를 예측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Van Ijzendoorn, 1992), 이는 여성이 어린 시절 자신의 어머니와 형성한 애착 유형의 내적 표상으로 인해 자신의 자녀와 상호작용하는 방식이 다르게 나타나기 때문인 것으로 판단된다. 특히 Diamond와 Doane(1994)의 연구에서는 개인이 자신의 부모와 형성한 애착이 개인의 자녀에 대한 표출정서와 관련이 있으며, 표출정서

가 높은 가족은 한 세대 위에서 형성된 애착력이 재작동할(re-enacting) 것이라고 설명하였다. Paley 등(2000)은 안정 애착 부모는 양육에서 민감하고 수용적이며 자녀와 협력하는 태도를 보이는데, 이는 표출정서가 낮은 가족과 특성이 유사함 말해준다. 반면, 회피형 애착 부모의 경우는 자녀를 충분히 돌보지 않고 분리되어 있으며, 자녀에 대한 민감성, 접근가능성이 낮고 실수에 대한 참을성이 부족한 모습을 보이는데, 이것은 표출정서가 높은 가족 중에서도 비난이나 적대감을 보이는 가족의 특성과 유사함을 알 수 있다. 양가/물두형 애착 부모는 자녀에게 수용적이며 접근가능성이 높기는 하나, 민감성이 낮고 강압적, 강박적인 양육행동을 보이는데, 이것은 표출정서가 높은 가족이 나타내는 정서적 과잉관여와 유사한 모습이다.

또한, 안정 애착을 형성한 개인은 부모의 태도를 온정적이고 수용적, 자율적으로 지각하는 반면, 다른 불안정 애착의 하위 유형을 가진 개인은 부모의 태도를 거부적, 통제적으로 지각하는 경향을 보였는데(옥정, 오윤희, 정현옥, 2001), 이는 애착과 ‘지각된 표출정서’ 사이의 부적인 관련성을 시사하며, 표출정서가 개인의 불안정 애착 경험과 표상에서 나오게 된다는 관점에서 애착과 더불어 표출정서의 세대 간 전이를 예측해 볼 수 있다(Diamond & Doane, 1994). 즉, 높은 표출정서를 보이는 여성의 행동 유형에서 애착은 잠재적인 기초가 될 수 있음을 말한다(Jacobsen, Hibbs, & Ziegenhain, 2000). 혼란된 애착 유형을 보이는 여성은 부모와의 사이에서 미해결된 상실감과 트라우마가 존재하고(Van Ijzendoorn,

Schuengel, & Bakermans-Kranenburg, 1999), 자녀를 돌볼 때 극심한 무기력을 느끼는 것과 관련이 있는데(Solomon & George, 1999), 어머니로서의 역할에 대한 무기력감이 높은 수준일 때 불안정 애착 중 한 하위 유형은 활성화되고, 이것은 공격적이고 적대적인 상호작용과 높은 표출정서를 특징짓는 비판 또는 정서적 과잉관여로 이어진다(Jacobsen et al., 2000).

그러나 애착과 표출정서 사이의 관계에서 개인이 어떤 기제를 통해 표출정서가 높은 가족으로 발달하게 되는지에 대한 근본적인 원인과 형성 과정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알려진 바가 거의 없는 상태이다. 또한 지각된 표출정서에 관한 연구는 다수 있으나(Cole & Kazarian, 1988; Hooley & Teasdale, 1989; Lebell et al., 1993), 이것이 자신의 표출정서에 어떻게 관여하는지 그리고 다음 세대의 지각된 표출정서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한 연구는 아직 미비하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자녀에 대한 표출정서와 표출정서의 가족적 원인으로 알려져 있고 개인의 내적표상을 형성하는데 영향을 미치는 어린 시절 어머니와의 애착 수준을 검토하고, 잠재적인 매개요인인 여성의 지각된 표출정서가 애착과 자녀에 대한 표출정서 사이에서 어떤 역할을 하는지 탐색하고자 한다.

상술한 이론적 배경을 바탕으로 다음과 같이 연구가설을 설정하였다.

연구가설 1. 성인여성의 아동기 시절 어머니에 대한 애착과 지각된 표출정서는 유의미한 부적상관이 있을 것이다.

연구가설 2. 성인여성의 아동기 시절 어머니에 대한 애착과 자녀에 대한 표출정서는 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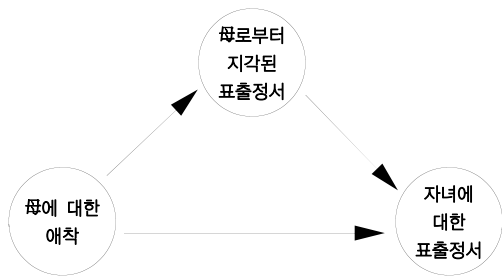


그림 1. 지각된 표출정서의 매개효과에 대한 가설적 모형

의미한 부적상관이 있을 것이다.

가설 3. 성인여성의 어머니에 대한 지각된 표출정서와 자녀에 대한 표출정서는 유의미한 정적상관이 있을 것이다.

가설 4. 성인여성의 어머니에 대한 애착은 지각된 표출정서를 매개로 자녀에 대한 표출정서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

가설 4에 대한 모형은 그림 1과 같다.

II. 연구 방법

1. 연구 대상 및 연구 절차

본 연구는 대구와 경북에 거주하며 만 4~10세까지의 자녀를 둔 성인여성을 대상으로 설문문을 통해 진행하였다. 2010년 9월부터 2010년 10월까지 약 8주의 기간 동안, 총 84부의 설문지를 배부하여 회수된 59부 중 참가자에게 연구 참여의 자발성, 녹음과 관련된 절차 및 비밀 보장을 설명한 후 5분 말하기에 동의한 49명을 대상으로 평가자가 직접 가정 방문하여 녹음하였다. 이 중 설문지를 잘못 기재하였거나 무성의하게 응답한 자료 8부는 분석

에서 제외하였다. 따라서 최종 참가자 수는 41명이었으며, 평가자간 신뢰도를 통해 5분 말하기에서 표출정서와 표출정서의 하위요인인 비판, 정서적 과잉관여 각각에서 두 평가자가 완전히 일치하는 대상 33명을 선정하여 본 연구의 가설을 검증하였다. 41명에 대한 사회인구학적 변인은 표 1과 같다.

2. 측정도구

성인애착척도(Adult Attachment Scale; AAS)

성인여성의 어머니에 대한 아동기 애착을 측정하기 위해 Hazan과 Shaver(1994)가 제작한 성인애착척도(Adult Attachment Scale: AAS)를 기초로 정혜승과 김광웅(2001)이 번안하고 이중부정문을 긍정문으로 수정한 것을 사용하였다. 이 질문지는 어머니에 대한 아동기 애착과 관련하여 16문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문항의 예로는 ‘나는 어머니와 충분한 시간을 보냈었다.’, ‘나는 내가 필요로 할 때 어머니가 나를 위해 있어주리라 믿었다.’, ‘나는 대부분의 일(걱정, 관심 등)을 혼자 마음속에 담아 두었다.’ 등이 포함되어 있다. 정혜승과 김광웅(2001)의 연구에서 내적 일치도를 구한 결과 .91로 나타났다. 애착척도의 점수 범위는 총 16점~112점이며 점수가 높을수록 성인여성이 아동기 시절에 안정적인 애착을 형성했음을 의미한다. 본 연구에서 신뢰도를 구한 결과 Cronbach's α 는 .89로 높은 일치도를 보였다.

한국판 표출정서 수준(Korean-Level of Expressed Emotion; K-LEE)

어머니로부터 지각한 표출정서를 측정하기

표 1. 성인여성의 인구통계학적 변인에 대한 빈도 분석

구 분	n = 41	
	빈도	%
연령	30세 이하	1 2.4
	31-35세	10 24.4
	36-40세	17 41.5
	41-45세	13 31.7
	계	41 100
	평균(표준편차)	38.10(3.58)
최종 학력	고졸	7 17.1
	전문대졸	8 19.5
	대졸	23 56.1
	대학원졸	3 7.3
	계	41 100
직업	가사	25 61.0
	서비스직	4 9.8
	사무직	4 9.8
	전문직	5 12.2
	기타	3 7.3
	계	41 100
결혼	미혼	0 0
	기혼	41 100
	동거	0 0
	별거	0 0
	이혼	0 0
	재혼	0 0
	사별	0 0
	계	41 100
자녀수	1명	5 12.2
	2명	27 65.9
	3명	7 17.1
	4명 이상	2 4.9
	평균(표준편차)	2.15(.69)

위해 Cole과 Kazarian(1988)이 개발하고 배현석(2000)이 국내에서 타당화한 표출정서수준척도(Korean Level of Expressed Emotion; K-LEE)를 사용하였다. 원 척도는 정신과 환자가 가족에 대해 지각한 표출정서를 측정하기 위해 개발되었으나, 예비조사 및 최종 문항 선택 과정에서 일반인 85명, 조현병 환자 18명을 대상으로 하고 있어, 정신과 환자뿐만 아니라 일반인을 대상으로 실시할 수 있도록 구성되었다(Cole & Kazarian, 1988). 배현석(2000)은 타당화 연구를 통해 세 개의 하위요인인 ‘지지부족, 비난, 간섭’으로 45문항을 구성하였다. ‘지지부족’은 존중 및 수용적인 태도와 정서적 지지, ‘비난’은 행동이나 성격에 대한 불만, 비난의 어조나 비언어적 표현, ‘간섭’은 강요나 과잉관여적 태도를 나타낸다. 각 하위요인 별 구성된 문항으로는 ‘어머니는 내가 힘들어할 때 나를 내버려둔다(지지부족)’, ‘어머니는 내가 어머니의 기대에 어긋나게 행동하면 나에게 죄책감을 안겨준다(비난)’, ‘어머니는 내가 하는 일에 항상 잔소리를 많이 한다(간섭)’ 등으로 이루어져 있다. 한편, 배현석(2000)의 연구에서 전체 내적 일치도가 Cronbach's α .95로 높게 나타나 Cole과 Kazarian(1988)의 연구와 비슷한 수준을 보였으며, 본 연구에서의 신뢰도는 Cronbach's α .93으로 나타났다.

5분 말하기(Five-Minute Speech Sample; FMSS)

5분 말하기는 주로 아동을 대상으로 하는 임상적 연구에 사용되는 도구로, Magaña 등(1986)이 제작하여 독일에서 표출정서 측정을 위한 도구로 검증된 바 있으며(Leeb et al.,

1991), 현재는 정신과적 병력이 없는 일반 성인과 아동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도 활용되고 있다(Laghezza et al., 2011).

본 연구자는 성인여성이 자녀에게 나타내는 표출정서를 측정하기 위해서 Magaña 등(1986)이 제작한 5분 말하기의 지시문과 평가 기준을 번안하였다. 번안 작업은 각 연구에서 제시된 5분 말하기 가이드라인과 평가 기준을 바탕으로(Diaz, 2001; Dorothy, 2005; McCarty, 2000), 임상심리전문의의 자문을 구하여 자연스럽고 정확한 우리말 표현으로 번안하였다. 또한, 8명의 예비조사 대상자들에게 실시하고 정확한 의미 전달이 어려운 부분을 재수정하는 과정을 거쳐 우리말 표현에 가깝고 보다 이해하기 쉽도록 문장의 순서를 일부 바꾸어 지시문을 완성하였다.

평가자간 신뢰도를 평가하기 위한 평가 기준에 있어서도, 2명의 평가자들에게 하위요인 각각의 개념을 설명하여 이해를 돕고, 개념을 분명하게 나타내지 못한다고 생각되는 하위요인의 명칭을 선별하여 개념과 일치하도록 수정하여 평가 기준을 완성하였다.

5분 말하기는 표출정서를 ‘비판’과 ‘정서적 과잉관여’인 두 개의 하위요인으로 나누어 평가한다. 높은 비판적 표출정서(High-Critical EE)를 평가하는 기준은 부정적인 첫 진술과 관계를 부정적으로 평가하기 등으로 구성되어있고 높은 정서적 과잉관여(High-EOI)는 과도한 칭찬, 자기희생적 행동, 과거에 대한 세부 묘사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McGuire & Earls, 1994). 5분 말하기의 내용이 높은 비판적 표출정서와 높은 정서적 과잉관여를 모두 포함할 경우 높은 표출정서(High-EE), 둘 중 하나만 포함할 경

우에는 경계선 표출정서(Borderline-EE), 둘 다 포함하지 않을 경우에는 낮은 표출정서(Low-EE)로 분류하였다(Jacobsen et al., 2000).

평가는 성인여성이 5분 동안 ‘자녀가 어떤 유형의 사람인지’, ‘자신(성인여성)과 자녀의 관계가 어떤지’에 대한 생각과 감정을 자유롭게 이야기하는 것을 기초로 한다. 본 연구자를 제외한 2명의 평가자가 녹음된 5분 말하기를 듣고 평가 기준에 따라 표출정서의 수준을 각각 측정하였으며, 본 연구자가 종합하여 평가자간 신뢰도를 구하는 과정을 거쳤다. 2명의 평가자는 정신보건임상심리사 2급의 자격증을 소지한 임상심리사로 구성되었으며, 표출정서 및 5분 말하기 평가 기준에 대한 교육과 함께 예비조사 대상자를 통해 얻은 샘플을 반복적으로 채점 및 논의하며 보다 구체적인 기준을 합의하였다. 평가 기준은 다음과 같다.

1. 비판: 첫 진술의 질, 관계의 질, 한 번 이상의 비난.
2. 정서적 과잉관여: 과도한 칭찬, 긍정적인 감정 표현, 자기희생 및 과잉보호에 대한 언급, 울음 등 정서적 좌절 표현, 자녀와 관련 없는 ‘과거’ 정보를 세부적으로 묘사.

총 5분의 녹음 시간동안 응답자들이 실제로 말한 평균 시간은 약 4분 56초였으며, 일부 응답자의 경우 5분의 녹음 시간을 경과하여 말하는 경우가 종종 있었으나 5분 이후의 반응에 대해서는 녹음하지 않았다.

조현병, 기분장애, 섭식장애를 가진 성인 환자의 가족, 비임상 집단의 자녀 및 부모에 대한 연구에서 5분 말하기의 평가자간 신뢰도는 높은 표출정서와 낮은 표출정서의 구분에서 Cohen's kappa 계수 .70~.86로 높게 나타났다

표 2. 5분 말하기의 kappa 및 급내상관계수

구 분		Kappa	ICC (급내상관계수)
비판		.76 ^{***}	-
비판의 하위요인	부정적인 첫 진술	.64 ^{***}	-
	부정적인 관계 평가	.61 ^{***}	-
	한 번 이상의 비판적 언급	.53 ^{***}	-
	비판적 언급에서 목소리 톤	.58 ^{***}	-
정서적 과잉관여(EOI)		.76 ^{***}	-
정서적 과잉관여의 하위요인	정서적 좌절을 표현	-	.82 ^{***}
	자기희생 또는 과잉보호 행동 묘사	-	.69 ^{**}
	관련 없는 과거 정보에 대한 세부묘사	-	.80 ^{***}
	자녀의 태도에 대한 과도한 긍정감정	-	.77 ^{***}
	과도한 칭찬(다섯 개 이상의 긍정적인 말)	.66 ^{***}	-
표출정서		.74 ^{***}	-

** $p < .01$. *** $p < .001$.

(Laghezza, et al., 2011; Magaña et al., 1986; Van Furth, Van Strien, Van Son, & Van Engeland, 1993). Magaña 등(1986)의 연구에서는 비판과 정서적 과잉관여의 평가자간 신뢰도는 다르게 나타났는데 비판의 경우 Cohen's kappa 계수가 .36~.94로, 정서적 과잉관여의 경우 Cohen's kappa 계수가 .56~.85로 나타났다.

본 연구에서 5분 말하기의 하위 항목 중 범주로 평가된 항목은 kappa 계수를 측정하였으며, 이를 제외한 항목은 헛수로 평가되어 급내상관계수(Interconstruct correlation; ICC)를 통해 평가자간 신뢰도를 평가하였다. 본 연구에서 표출정서의 평가자간 신뢰도는 Cohen's kappa 계수 .74이며, 비판 및 정서적 과잉관여의 경우에는 각각 .76으로 나타났다. 자세한 사항은 표 2에 제시하였다.

3. 분석 방법

자료는 통계 프로그램인 SPSS 18.0K을 사용하였다. 성인애착척도와 한국판 표출정서수준척도는 각 문항의 합을 구하였고, 5분 말하기는 더미변수로 변환하여 분석하였다.

먼저 연구대상자와 그 자녀의 인구통계학적 특성과 주요변인의 분포, 애착 수준에 따른 표출정서의 분포를 파악하기 위해 빈도분석과 기술통계분석을 실시하였다. 애착과 지각된 표출정서를 측정하는 각 척도의 신뢰도는 Cronbach's α 값으로 산출하였으며, 5분 말하기의 평가자간 신뢰도를 보기 위해서는 kappa계수, 급내상관계수를 측정하였다. 이 중 5분 말하기에서 평가자 간 일치하는 결과를 보인 33명을 대상이 최종 선정되었으며,

이들 중 개별 자기보고용 설문지에서 극단적인 점수를 보이는 대상은 없었다. 애착과 표출정서, 애착과 지각된 표출정서, 지각된 표출정서와 표출정서의 관계를 파악하기 위해 Pearson의 상관관계 분석을 실시하였고, 애착과 표출정서에서 지각된 표출정서의 매개효과를 알아보기 위해 위계적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III. 결과 및 해석

1. 애착, 지각된 표출정서, 표출정서의 분포

애착과 지각된 표출정서의 평균과 표준편차는 표 3, 표출정서의 수준에 따른 애착, 지각된 표출정서의 평균과 표준편차는 표 4에 제시하였다. 각 요인별 전체 평균을 살펴보면,

애착이 $78.70(SD = 12.91)$, 지각된 표출정서가 $53.03(SD = 8.32)$ 으로 나타났으며, 표출정서 수준의 경우, 높은 표출정서와 낮은 표출정서가 각각 10명, 경계선 표출정서가 13명이었다. 높은 표출정서 가운데 애착의 평균이 $66.00(SD = 3.35)$, 지각된 표출정서의 평균이 $63.40(SD = 7.28)$ 이고, 경계선 표출정서의 애착 평균은 $77.31(SD = 6.12)$, 지각된 표출정서 평균이 $50.54(SD = 2.40)$ 이며, 낮은 표출정서의 애착 평균이 $93.20(SD = 6.27)$, 지각된 표출정서의 평균은 $45.90(SD = 0.88)$ 으로 나타났다.

2. 애착과 표출정서에 대한 지각된 표출정서의 매개효과

먼저 가설 1과 2, 3의 검증 결과, 본 연구에서 조사한 애착, 지각된 표출정서, 자녀에 대한 표출정서 각각의 변인들 간 상관관계를 확

표 3. 애착, 지각된 표출정서의 평균 및 표준편차

변 인	$n = 33$			
	최소값	최대값	M	SD
애착	53.00	103.00	78.70	12.91
지각된 표출정서	45.00	76.00	53.03	8.32

표 4. 표출정서의 수준에 따른 애착, 지각된 표출정서

변 인		$n = 33$				
		빈도	애착		지각된 표출정서	
			M	SD	M	SD
표출정서	높은 표출정서	10	66.00	9.35	63.40	7.28
	경계선 표출정서	13	77.31	6.12	50.54	2.40
	낮은 표출정서	10	93.20	6.27	45.90	0.88

표 5. 주요 변인들 사이의 상관분석

(N = 33)

구 분	1	2	3
1. 성인여성의 어머니에 대한 애착	-		
2. 성인여성의 어머니에 대한 지각된 표출정서	-.80 ^{***}	-	
3. 성인여성의 자녀에 대한 표출정서	-.83 ^{***}	.83 ^{***}	-

^{***} $p < .001$.

인하였으며, 상관분석 결과를 표 5에 제시하였다. 표 5와 같이, 어머니에 대한 성인여성의 애착은 지각된 표출정서($r = -.80, p < .001$), 자녀에 대한 표출정서($r = -.83, p < .001$)와 부적 상관관계를 보였다. 한편, 어머니에 대한 성인여성의 지각된 표출정서는 자녀에 대한 표출정서($r = .83, p < .001$)와 정적 상관관계를 보였다.

또한, 가설 4를 검증하기 위해 애착과 지각된 표출정서가 자녀에 대한 표출정서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탐색하였고, 위계적 회귀분석을 실시한 결과, 예상대로, 애착은 표출정서를 유의미하게 예측하였다. 표 6을 살펴보면,

성인여성의 애착이 표출정서를 설명하는 정도는 69.4%로 나타났고, β 값이 $-.83$ 으로 나타나 표출정서에 대한 애착의 영향력이 높음을 보여주었다($p < .001$). 두 번째 단계에서 애착과 지각된 표출정서가 함께 투입됨에 따라, 표출정서에 대한 설명량이 77.0%로 7.6% 증가하는 것을 볼 수 있으며(Adj. $R^2 = .75$), 그 영향력 또한 유의미하였다($p < .01$). 즉, 2단계에서 지각된 표출정서가 투입되면서 1단계보다 상대적으로 애착의 영향력이 감소하는 동시에($\beta = -.47$), 표출정서에 미치는 효과와 세 변인 간 관계는 유의함을 볼 수 있다($p < .001$). 이러한 결과를 통해 어머니에 대한 성인여성의

표 6. 애착이 표출정서에 미치는 영향(지각된 표출정서의 매개효과)

독립변인	1단계		2단계	
	B	β	B	β
1 모(母)에 대한 성인여성의 애착	-.05	-.83 ^{***}	-.03	-.47 ^{***}
2 모(母)에 대한 지각된 표출정서			.04	.46 ^{**}
F	70.36 ^{***}		50.11 ^{***}	
R^2	.69		.77	
ΔR^2	.69		.08	
Adj. R^2	.68		.75	

주. 종속변인: 표출정서

 $\Delta R^2 = R^2$ Change^{**} $p < .01$. ^{***} $p < .001$.

애착과 지각된 표출정서가 각각 표출정서를 예측하였을 뿐만 아니라, 지각된 표출정서는 애착과 표출정서를 매개하여 영향력을 높여주는 것을 알 수 있다. 한편, 지각된 표출정서의 매개 효과 크기에 대한 유의도 검증을 위한 sobel test 결과, 애착과 표출정서와의 관계에서 유의미한 부분매개변수임을 검증하였다($z = -3.07, p < .01$).

IV. 논의 및 결론

정신장애의 가족적 원인 중 하나로 표출정서가 알려지고 그에 따른 연구가 증가하면서, 애착이 표출정서에 영향을 미치고 불안정 애착과 높은 표출정서가 함께 대물림된다는 연구결과를 이미 설명한 바 있다(Diamond & Doane, 1994; Paley et al., 2000). 이에, 본 연구에서는 부모가 과거 자신의 부모와 형성했던 애착경험이 자녀에 대한 표출정서에 영향을 미친다는 연구를 바탕으로(Diamond & Doane, 1994; Dozier, Stevenson, Lee, & Velligan, 1991; Paley et al., 2000), 성인여성의 지각된 표출정서가 애착과 자녀에 대한 표출정서에 어떤 역할을 하는지 탐색하는데 의의를 두었다.

본 연구를 통해 얻어진 결과들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성인여성의 어머니에 대한 애착과 지각된 표출정서, 어머니에 대한 애착과 자녀에 대한 표출정서는 각각 부적으로 상관관계를 보였다. 이러한 결과는 어머니에 대한 애착이 불안정적일수록 지각된 표출정서가 높을 가능성이 많고, 부모에 대한 애착이 이후 자녀에 대한 표출정서에 영향을 미친다는

이전의 연구 결과들과 일치하며(Diamond & Doane, 1994; Dozier et al., 1991; Paley et al., 2000), 가설 1과 2를 살펴보기에 앞서 안정된 근거를 제공한다. 즉, 어머니가 양육행동에서 화를 내거나 강압적인 모습을 보이면 개인은 불안정한 애착을 형성하게 되고, 불안정 애착을 형성하게 된 자녀는 어머니와의 상호작용에서 표출정서를 높게 지각하게 될 것이다. 또한, 이러한 과정에서 형성된 어린 시절의 내적작동모델이 자녀와의 관계에서 재작동하며, 불안정 애착을 형성했던 여성은 부정적 내적 표상을 형성하여 자녀에 대한 표출정서가 높아지게 됨을 시사한다. 따라서 애착과 표출정서의 관계를 설명함에 있어, 성인여성의 어머니에 대한 애착과 자녀에 대한 표출정서의 상관관계는 안정 애착을 통해 형성한 내적작동모델의 중요성을 단편적으로 보여주는 것이라고 할 수 있으며, 본 연구의 결과 또한 선행 연구를 지지한다.

아울러 어머니에 대한 성인여성의 지각된 표출정서와 자녀에 대한 표출정서의 관계는 유의미한 정적 상관관계를 나타낸다는 결과에 따라 가설 1이 지지되었다. 이는 불안정 애착이 세대 간 전이됨과 동시에 높은 표출정서 또한 세대 간 전이가 이루어진다는 Diamond와 Doane(1994)의 연구결과를 지지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뿐만 아니라, 부모가 어린 시절 경험했던 자기 부모의 양육행동을 그대로 자녀에게 반복한다는 선행 연구와도 일치하는 것으로 보인다(장휘숙, 1997). 이처럼 세대 간 전이를 연구한 일관된 연구 결과들을 종합하여 보면, 지각된 표출정서와 자녀에 대한 표출정서의 상관관계는 가족의 한 구성원이 피해자와

동시에 가해자도 될 수 있음을 의미하며, 표출정서가 한 개인의 환경적 스트레스로만 작용하는 것이 아니라 가족 구성원 전체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음을 시사한다.

셋째, 애착과 표출정서에 대해 지각된 표출정서가 매개 역할을 할 것이라는 가설 2 역시 지지되었다. 즉, 불안정한 애착을 형성한 여성은 어린 시절 부모로부터 지지는 적게 받았던 반면 간섭은 많이 받았다고 느끼며, 이와 같은 지각된 표출정서의 경험으로 인해 자녀와의 관계에서 높은 표출정서를 나타내게 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는 자녀와 불안정 애착을 형성한 여성보다 안정 애착을 형성한 여성이 자신의 어머니와의 관계를 더 긍정적으로 인식하며, 어머니가 더 양육적이고 정서적으로 지지를 해주었다고 지각한 것으로 나타난 Morris(1980: 이해승, 2000에서 재인용)의 연구와도 유사한 결과이다.

부모에게 지속적이고 풍부한 지지를 받지 못한 개인은 그러한 상호작용 경험을 장기간 축적하고 부정적인 내적 표상으로 내재화할 수 있으며, 자녀와의 관계에서 상호작용할 때 드러날 수 있다. 따라서 부모의 부적절하고 부족한 지지로 인해 불안정 애착을 형성한 개인은 자녀와의 관계에서 높은 표출정서를 보일 가능성이 높으며, 그 자녀 또한 높은 표출정서를 보이는 부모와의 상호작용을 통해 부정적인 내적작동모델이 형성되고, 다시 그 자녀의 자녀에게 높은 표출정서를 나타낼 가능성이 높다는 것을 시사한다.

종합하면, 본 연구는 애착과 함께 높은 표출정서의 일부가 세대 간 전이되는 것의 단면을 나타내며, 이는 Diamond와 Doane(1994)가

표출정서는 부모 자신의 불안정 애착 경험과 그 표상에서 나오게 되는 것으로 불안정 애착 패턴이 세대 간 전이에 수단이 될 수 있다는 주장을 뒷받침하는 것으로 보인다. 또한, 이를 대상관계의 측면에서 보면, 인생 초기 애착 대상과의 관계 속에서 경험하는 대상에 대한 여러 표상이 자녀의 자아 속에서 통합되고 내면화되어 실제 가족과의 상호작용에서 나타나게 되는 것으로 설명할 수 있겠다. 표출정서에 대한 개인의 표상이 가족과의 상호작용을 통해 드러나는 것이다.

본 연구의 제한점과 후속 과제는 다음과 같다. 첫째, 성인여성의 애착과 지각한 표출정서를 측정하기 위하여 설문지를 사용했다. 설문지 측정에 앞서 5세에서 12세 사이의 경험과 느낌을 되살려 응답하라는 지시가 있었지만, 회상에 의존한 응답이 주를 이루었을 것이라고 생각된다. 따라서 어린 시절에 경험한 감정이 흐려졌으며 이후의 판단과 해석으로 왜곡되었을 가능성이 있다. 이러한 제한점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3세대를 직접 살피는 장기적인 종단 연구를 통해 애착, 지각된 표출정서와 표출정서를 단계적으로 탐색하고, 표출정서의 세대 간 전이를 면밀히 살필 수 있을 것이다.

둘째, 본 연구에서는 자녀에 대한 표출정서의 측정을 위해 빈도 사건 표집의 유형인 5분 말하기를 사용하였다. 인터뷰 및 평가를 하는 연구 절차에 피험자들이 참여하는 데 있어 비용과 시간 소요가 컸던 바, 많은 대상이 참가하는데 제한적이었고, 최종적으로 33명의 참가자만을 대상으로 연구 결과를 도출하였다. 따라서 본 연구의 결과를 일반화시키는 것에

는 다소 어려움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되며, 더 많은 대상을 통한 연구에서 반복하여 검증될 필요가 있을 것이다.

셋째, 본 연구는 심리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지 않은 가족을 대상으로 실시하였다. 비록 표출정서가 최근 아동, 청소년에 대한 부모의 정서적 태도에 관한 연구로 그 범위가 넓어지고 있으나(Stubbe, et al., 1993), 장애의 발병 및 재발과 깊은 연관성을 보이는 것이 사실이다. 따라서 각각의 정신장애마다 지각된 표출정서의 역할을 검증하는 추가적인 연구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상술한 제한점에도 불구하고, 본 연구는 아래와 같은 의의를 갖는다. 첫째, 3대에 걸쳐 표출정서의 전이를 연구했다는 점이다. 애착과 지각된 표출정서의 매개요인만을 연구한 선행 연구와 달리 가족 내 구성원의 상호작용에서 나타나는 지각된 표출정서를 살핍으로써, 불안정 애착과 높은 표출정서가 세대 간 전이될 수 있음을 밝혔다. 이는 개인에 대한 가족의 영향이 대를 이어 전해질 수 있다는 시사점을 제공한다.

둘째, 지각된 표출정서 뿐만 아니라, 5분 말하기를 통한 객관적인 표출정서를 살폈다. 가족 구성원이 나타내는 표출정서보다 개인이 지각하는 표출정서의 중요성이 더 크다는 연구 결과를 볼 때(허정선, 현명호, 2005; Hooley & Teasdale, 1989), 개인이 높은 표출정서를 지각하는 것을 예방하기 위해 우리는 표출정서의 객관적인 특성을 파악하고, 그에 적절하게 대처할 필요가 있다. 즉, 본 연구가 다소 적은 참가자로 인해 내적 신뢰도 및 타당도에 일면한계를 지니고 있는 있으나, 객관적인 지표를 통

해 표출정서를 평가했다는 점은 하나의 선행 연구로 충분히 가치가 있다고 판단되며, 본 연구의 결과는 애착 및 표출정서와 관련된 후속 연구에 기반이 될 수 있을 것이다.

참고문헌

- 김상남, 이경희 (2002). 표출감정 개념을 다룬 연구논문 분석. 정신간호학회지, 11(2), 236-248.
- 김진훈, 김대호, 강유미, 박성혁, 이창훈, 장동원 (2007). 한국어판 표출감정평가척도의 신뢰도와 타당도. 대한신경정신의학회, 46(2), 144-150.
- 배현석 (2000). 정신과 환자가 지각한 가족 표출정서의 한국판 척도개발 연구. 계명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옥 정, 오윤희, 정현옥 (2001). 청소년기 애착 유형과 지각된 부모양육행동: 재소중인 비행 집단, 위험 집단, 정상집단의 비교. 한국심리학회지: 임상, 20(2), 259-270.
- 이혜승 (2000). 부모의 아동기 애착이 양육행동에 미치는 영향. 숙명여자대학교 아동연구소: 아동연구, 14(2), 19-36.
- 장휘숙 (1997). 애착의 전생애 모델과 대물림: 전생애 발달심리학적 조망에서 애착연구의 개관. 한국심리학회지, 16(1), 80-97.
- 정옥분, 정순화, 황현주 (2009). 애착과 발달. 서울: 학지사.
- 정혜승, 김광웅 (2001). 어머니 자신의 부모 애착 및 양육행동과 자녀 애착과의 관계. 한국놀이치료학회지, 4(1), 95-105.

- 하유미, 박성연 (2012). 어머니의 성인애착, 부정 정서 및 정서조절양식이 양육행동에 미치는 영향. *인간발달연구*, 19(2), 175-195.
- 허정선, 현명호 (2005). 가족의 애착, 귀인양식 및 자아탄련성과 표출정서(Expressed Emotion)의 관계. *한국심리학회지: 임상*, 24(1), 37-51.
- Andrzej, C., Anna, B., Igor, H., & Artur, D. (2012). The predictive validity of expressed emotions(EE) in schizophrenia. A 20-year prospective study. *Journal of Psychiatric Research*, 47(2), 208-214.
- Bowlby, J. (1973). *Attachment and loss, Vol. 2: Separation, attachment theory*. New York: Basic Books.
- Brown, G. W., Birely, J. L. T., & Wing, J. K. (1972). Influence of family life on the course of schizophrenia disorder. *British Journal of Psychiatry*, 121, 241-258.
- Butzaff, R. L., & Hooley, J. M. (1998). Expressed emotion and psychiatric relapse: A meta-analysis. *Archives of General Psychiatry*, 55, 547-552.
- Chambless, D. L., Bryan, A. D., Aiken, L. S., Steketee, G., & Hooley, J. M. (2001). Predicting expressed emotion: A study with families of obsessive-compulsive and agoraphobic outpatients. *Journal of Family Psychology*, 15, 225-240.
- Cole, J. D., & Kazarian, S. S. (1988). The level of expressed emotion scale: A new measure of expressed emotion. *Journal of Clinical Psychology*, 44, 392-397.
- Daniel L. G., Renee R. H., James L., & Susan, W. B. (2011). Parental expressed emotion of adolescents with anorexia nervosa: Outcome in family-based treatment. *International Journal of Eating Disorders*, 44(8), 731-734.
- Diamond, D., & Doane, J. A. (1994). Disturbed attachment and negative affective style. An intergenerational spiral. *British Journal of Psychiatry*, 164, 770-781.
- Diaz, D. S. (2001). *Expressed emotion, attributions and spinal cord injury*. New York: California University Press.
- Dorothy Phillips Sisson, M. A. (2005). *Expressed emotion in parents of children with early-onset mood disorders*. New York: The Ohio State University Press.
- Dozier, M., Stevenson, A. L., Lee, S. W., & Velligan, D. I. (1991). Attachment organization and familial overinvolvement for adults with serious psychopathological disorders. *Development and Psychopathology*, 3, 475-489.
- Hamilton, C. E. (2000). Continuity and discontinuity of attachment from infancy through adolescence. *Child Development*, 71, 690-694.
- Hazan, C., & Shaver, P. (1994) Attachment as an organizational framework for research on close relationships. *Psychological Inquiry*, 5, 1-22.
- Hooley, J. M., & Hoffman, P. D. (1999). Expressed emotion and clinical outcome in borderline personality disorder. *American Journal of Psychiatry*, 156, 1557-1562.

- Hooley, J. M., & Teasdale, J. D. (1989). Predictors of relapse in unipolar depressives: Expressed emotion, marital distress, and perceived criticism. *Journal of Abnormal Psychology, 98*, 229-235.
- Jacobsen, T., Hibbs, E., & Ziegenhain, U. (2000). Maternal expressed emotion related to attachment disorganization in early childhood: A preliminary report. *Journal of Child Psychology and Psychiatry, 41*(7), 899-906.
- Katie, L., Dorothy, J., Lindsey, B., Valerie, S., & Brandon, E. (2012). Expressed emotion-criticism and risk of depression onset in children. *Journal of Clinical Child Adolescent Psychology, 41*(6), 771-777.
- Koenigsberg, HW., Klausner, E., Pelino, D., Rosnick, P., & Campbell, R. (1993). Expressed emotion and glucose control in insulin-dependent diabetes mellitus. *American Journal of Psychiatry, 150*(7), 1114-1115.
- Laghezza, L., Delvecchio, E., Salcuni, S., Di Riso, D., Chessa, D., Lis, A., Tompson, MC., (2011) Five-minute speech sample measure of expressed emotion among parents of typically developing Italian children: A pilot study. *Perceptual & Motor Skills, 112*(2), 382-392.
- Lebell, M. B., Marder, S. R., Mintz, J., Mintz L. I., Tompson, M., Wirshing, W., . . . McKenzie, J. (1993). Patients' perceptions of family emotional climate and outcome in schizophrenia. *British Journal of Psychiatry, 162*, 751-754.
- Leeb, B., Hahlweg, K., Goldstein, M. J., Feinstein, E., Mueller, U., Dose, M. & Magaña-Amato, A. (1991). Cross-national reliability, concurrent validity, and stability of a brief method for assessing expressed emotion. *Psychiatry Research, 39*, 25-31.
- Magaña, A. B., Goldstein, M. J., Karno, M., Miklowitz, D. J., Jenkins, J., & Falloon, I. R. (1986). A brief method for assessing expressed emotion in relatives of psychiatric patients. *Psychiatry Research, 17*, 203-212.
- Martha, C. T., Claudette, B. P., Kathryn, D. B., James, W. M., & Priscilla, T. C., & Rachel, D. F., (2009) Maternal depression, maternal expressed emotion, and youth psychopathology. *Journal of Abnormal Child Psychology, 38*(1), 105-117.
- McCarty, C. A., (2000). *Affective attitudes among mothers of clinic-referred children*. New York: California University Press.
- McGuire, J. B. M., & Earls, F. (1994). Research note: The test-retest stability of the five minute speech sample in parents of disadvantaged, minority children. *Child Psychology and Psychiatry, 35*(5), 971-979.
- Nathalie, M., Guy, B., & James C. C. (2012). The association between partners' Expressed emotion and depression: Mediated by patients' dysfunctional attitudes? *Journal of Social and Clinical Psychology, 31*(7), 690-706.
- Paley, G., Shapiro, D. A., & Worrall-Davies, A. (2000). Familial origins of expressed emotion in relatives of people with schizophrenia. *Journal of Mental Health, 9*, 655-663.

- Solomon, J., & George, C. (1999). The place of disorganization in attachment theory: Linking classic observations with contemporary findings. In J. Solomon & C. George (Eds.), *Attachment disorganization* (pp. 3-32). New York: Guilford Press.
- Stubbe, D. E., Zahner, G. E. P., Goldstein, J. J., & Leckman, J. F. (1993). Diagnostic specificity of a brief measure of expressed emotion: A community study of children. *Journal of Child Psychology and Psychiatry*, 34, 139-154.
- Susan, L. E., Ronald, M. R., Susan K. (2010) Prediction of anxiety symptoms in preschool-aged children: Examination of maternal and paternal perspectives. *Journal of Child Psychology and Psychiatry*, 51, 313-321.
- Tarrier, N., Sommerfield, C., & Pligim, H. (1999). Relatives' expressed emotion and PTSD treatment outcome. *Psychological Medicine*, 29(4), 801-811.
- Van Furth, E. F., Van Strien, D. C., Van Son, M. J., & Van Engeland, H. (1993). The validity of the Five-Minute Speech Sample as an index of expressed emotion in parents of eating disorder patients. *Journal of Child Psychology & Psychiatry*, 34, 1253-1260.
- Van Ijzendoorn, M. H., (1992). Intergenerational transmission of parenting: A review of studies in nonclinical populations. *Developmental Review*, 12(1), 76-99.
- Van Ijzendoorn, M. H., Schuengel, C., & Bakermans-Kranenburg, M. (1999). Disorganized attachment in early childhood: Meta-analysis of precursors, concomitants, and sequelae. *Development and Psychopathology*, 11(2), 225-250.
- Vaughn, C. E., & Leff, J. P. (1976). Influence of family and social factors on the course of psychiatric illness. *British Journal of Psychiatry*, 129, 125-137.

1 차원고접수 : 2014. 01. 08.
수정원고접수 : 2014. 02. 15.
최종게재결정 : 2014. 03. 04.

The Relationship between Adult Females' Attachment in Childhood and Their Expressed Emotions to Their Children: The Mediating Effects of Adult Females' Perceived Expressed Emotions

Yi, Seon-Ji

Kim, Jung-Mo

Department of Psychiatry, Youngnam University

This study examined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quality of adult females' attachment to their own mothers in childhood and the quality of their expressed emotions of the 33 adult females who comprised the study group to their children. In addition to the direct path of the effects of adult females' attachment on their expressed emotions, we investigated the mediating effects of adult perceived expressed emotions. The Adult Attachment Scale (AAS), Korean-Level of Expressed Emotion (K-LEE), and the Five-Minute Speech Sample (FMSS) were administered to the 33 adult females. The results indicated that adult females' attachment related closely to their perceived expressed emotions to their own mothers and their subsequent expressed emotions to their children, and the mediating effects of perceived expressed emotions were seen to be significant. These results suggested strongly that intergenerational transmission of expressed emotions did indeed take place, and was significant and objectively seen through expressed emotions in the Five-Minute Speech Sample. In addition, the result suggests that attachment and expressed emotions are important factors in determining family interactional patterns.

Keywords : attachment, expressed emotion, intergenerational transmission, Five-Minute Speech Sample.